

지방교육 복지재정의 실태 분석 연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이영내 · 주철안[†]
(부산대학교)

Local Education Welfare Financial Analysis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Special Account

Young-Nae LEE · Chul-An JOO[†]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ize of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Special Account and Educational finance Changes based on the welfare types from 2009 to 2013. It also identifies the impact on welfare finance education programs that target low-income students. The size of Education welfare finance was increased to 355.3 billions (2013) from 90.9 billions (2009), with the last 5 years average annual growth rate as high as 41.9%. But there has been relative decrease in the size of selective welfare budget for low income students such as tuition assistance & IT support to low-income and vulnerable groups, rural schools support to improve facilities, education welfare priority program.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size of selective welfare budget should not be decreased due to universal education welfare policy. If it is to expand the universal education welfare, then there should be redesigning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further revenue for local education finance to keep the budget for the education welfare target groups.

Key words : Local education finance, Educational welfare, Selective Education Welfar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복지는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질 높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의도된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Kim In-Hee, 2011). 교육복지의 범위는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 불평등 완화, 교육부적응 해소, 복지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기회의 확대(저소득층 교육지원,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장애인 및 건강장애자 교육, 새터민청소년 교육 등), 교육불평등 완화(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사교육 불평등 완화), 교육부적응 해소(대안교육 활성화 등),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다룬다(An · Kim, 2009).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은 선별적 복

[†] Corresponding author : 051-510-2635, cajoo@pusan.ac.kr

지 차원에서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교육적 배려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년 무상급식과 2012년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에서의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의 증가로 인해 교육복지 정책의 규모와 성격이 크게 전환되고 있다 (Lee ·Woo , 2014).

고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복지에 투입되는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사업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에서 지출되며, 2010년에는 기존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보통교부금화되면서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교육복지 예산편성권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한 한계, 지역간 교육복지 재정격차의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Kim et al., 2011; Ryu et al., 2011; Kim, 2010).

더욱이, 지방교육재정에서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의 지출 확대로 인해 재정 투자 소요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지만, 급증하는 교육복지 지출 확대에 비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은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증가되는 복지프로그램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중앙정부의 예산부처에서는 교육분야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공교육 개혁과제 정착 및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복지강화’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추세에 상응하여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Song, 2013; Yun, 2012). 이러한 중앙정부의 예산부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에서 복지재정의 규모와 비중의 최근 추이와 그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교육복지의 개념정립과 모형 개발, 법적·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등이 여러 가지로 추진되어 왔다(Lee, 2010; Park·Hwang, 2008). 그러나,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영역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교육복지영역에 대한 통계지표가 일관성 있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복지에 투입된 재정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Chun et al, 2013). 더욱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Lee·Woo, 2014).

이러한 지방교육복지 재정 정책과 관련된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복지정책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재정의 규모와 비중, 유형별 추이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추세가 저소득층이나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재정 단위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복지재정의 규모, 복지유형별 재정규모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추세가 저소득층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재정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복지의 개념 유형을 구분하고, 최근 5년간 교육복지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변화 내역을 파악한다.

나.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복지재정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복지정책 유형별 재정 규모의 변화 추이를 검

도한다.

다. 교육복지정책 유형별 재정 규모의 변화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재정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 교육복지의 개념과 유형

1. 교육복지의 개념

일찍이 문민정부는 교육을 국민의 권리이자 복지로 천명한 바 있다. 이처럼 교육은 그 자체가 복지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교육복지에 대한 연구들은 관점에 따라 교육복지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복지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Kim, 2013).

학자와 기관에 따라 교육복지의 대상과 기능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교육복지의 궁극적

인 목표가 단순히 불평등의 해소가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유의미한 교육적 성장을 이루는 것에 둔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인 학습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사회통합 및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음은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학자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Table 1> 참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정의한 교육복지의 개념 속에 대상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위 정의에서도 살펴보면, 같은 연구자라도 교육복지의 목표에 따라 대상자의 범주가 달라진다. ‘모든 국민, 누구나’는 광의의 범주이며, ‘교육 취약집단, 교육소외자, 소외계층’ 등은 협의의 범주로 구분된다. 그러나 Lee Bong-Ju·Woo Myeong-Suk(2014)은 협의와 광의의 이분법적 틀을 지양하고자 중범위적 관점에 따른 교육복지의 정의를 내림으로써, 아동복지의 개념과

<Table 1> Definitions of Education Welfare

researcher	target	contents	goal
5·31 reform proposal (1995)	everyone	whenever, wherever providing opportunity	self-development
Lee (1999)	everyone	providing opportunity for education	realization of growth needs
Ministry (2004)	all people	solution of alienation, maladjustment, inequality	quality education
Kim et al (2008a)	disadvantaged group	educational opportunity, learning experience	growth as member of society
Kim et al (2008b)	all people	minimum requirements of education	maximum realization of potential
An·Kim (2009)	alienated group	overcoming educational alienation	potential development, quality life
Ryu (2010)	alienated group	educational opportunity, meaningful learning experience	growth as autonomous citizen
Ryu et al (2012)	all people	meaningful learning	maximum realization of potential
Chun et al (2013)	disadvantaged group	assurance of educational opportunity & equality	mobilization of various policy measures
Lee·Woo (2014)	disadvantaged group, all people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development	support centered around schools

Source: Kim, Hyeok-Yeon(2013) Requoted. with some modifications

협의의 교육복지 개념을 결합하고 있다. 교육복지의 개념에 있어 다양한 정의들 속에는 최소한 ‘교육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요소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2. 교육복지의 유형

한국사회에서 복지논쟁이 급부상하면서 대표적 전선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간에 벌어졌다. 학자들 간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대항적이라 할 수 없다며, 선별주의 대신 잔여주의 라는 말도 사용한다. 교육복지의 유형에 대한 연구로는 Kim(2010), Yun(2011), Choi(2011), Chun et al(2013), Ban(2013), Kim(2013) 등이 있다.

가. 보편적 교육복지

<Table 1>에서 5·31 교육개혁안(1995), Lee Don-Hee(1999)는 교육복지 대상을 ‘누구나’로 정의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2004), Kim 외(2008b), Ryu 외(2012)는 ‘모든 국민’을 교육복지의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복지의 대상을 ‘누구나 또는 모든 국민’이라고 정의한 것은 교육복지정책의 대상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편적 관점의 교육복지라 할 수 있다.

보편주의 복지 관점에서 본 교육복지는 일체의 조건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는 보편주의 복지는 단순하고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논점들을 내재하고 있다(Yoon, 2011).

보편주의 복지의 대상에 대한 논점에는 무엇을 복지 서비스로 제공할 것인가도 포함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의 교육현실이나 빈곤층 등의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시급한 복지 서비스들이 많이 존재한다. Kim Dae-Ho(2010)는 교재 관련 비용, 준비물 비용, 교복 구입비, 빈곤층 고교

생과 방학 중 결식 학생 관련 예산, 방과 후 학습지원 예산, 상담교사 등 보조교원 확충 예산, 공공 장학금 예산 등이 무상급식에 비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한다.

나. 선별적 교육복지

<Table 1>에서 Kim et al(2008a), An·Kim(2009), Ryu(2010), Chun et al(2013), Lee·Woo(2014)는 ‘경제적·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교육복지의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들은 선별적 관점에서의 정의이다. 선별적 교육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기구와 같은 정상적인 공급의 기구가 붕괴될 때 비로소 교육복지가 개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을 사회적 취약집단이나 교육 취약집단으로 한정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경제적, 문화적, 신체적, 지역적 취약 집단 등이다. 경제적 취약집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이고, 문화적 취약 집단은 다문화 가정 자녀이며, 신체적 취약집단은 장애 학생, 지역적 취약집단은 농산어촌 학생 등이다 (Kim et al, 2008a).

교육복지 정책의 도입 초기에 교육소외계층은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으로 정의되어졌으나 최근에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상당수와 북한 이탈주민가정 청소년들도 학습 부적응, 심신 건강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2010). 따라서 이들도 교육복지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보편과 선별의 연속선상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보편과 선별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Ku et al, 2010). 일반적으로 보편주의는 복지사업별 접근에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인 반면, 선별주의는 특정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을 선별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어떤 조건이나 제한 없이 제공되는 복지사업을 ‘보편(A)’으로,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의 학생에게 제공되

는 복지사업을 ‘선별(B)’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복지사업은 다음과 같다
 (<Table 2> 참조).

<Table 2> Classifications of Educational Welfare based on Service Type

welfare service	
A	scholarship for specialized school, after school program, Nuri curriculum expenses, free compulsory, free lunch, free textbook
B	tuition, scholarship, after school voucher, lunch program, IT, internet, textbook expense for lower income group, rural schools, schools with dormitory, educational investment zone, safety network project

Sourc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budget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2013. - Classification was based on sub-unit of education welfare policy area.

Ⅲ. 교육복지 정책

1.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2011년까지 교육복지의 개념과 유형에 관계없이 세출예산과목에는 정책사업으로 ‘교육격차해소사업’이 있었고, 정책사업 내에는 단위사업으로 ‘학비지원’, ‘학력격차해소’,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투자지원’ 등 6개 사업이 있었다.

2012년 누리과정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출예산과목에 변화가 있었다. 정책사업 명칭이 ‘교육격차해소’가 ‘교육복지지원’으로 변경되고, 2013년 단위사업에서 ‘학력격차해소사업’이 제외

<Table 3> Sub-program of Education Welfare Support Policy

program	sub program	contents
tuition support	lower income students	·junior & high school students ·social cared student in special-purpose high school
	scholarship	·scholarship for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free education	·preschool students
after school support	after school program	·program expenses ·college students mentoring, coordinator, caring program, support center etc
	5 days week program	·expenses relating the 5 days week program
	after school voucher	·expenses of the voucher for lower income students
lunch program	lunch for term-time	·free lunch for primary school, lower income students, special students
	lunch for weekend	·lower income students
IT support	for lower income students	·internet expenses ·PC support ·IT education expenses
rural school condition	rural school education	·excellent high school program in rural area ·rural school and small school project etc ·integrated school program
	school with dormitory	·educational condition for school with dormitory
educational welfare program	welfare priority safety network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gram
Nuri curriculum	Nuri curriculum support	·3~5 years Nuri curriculum expenses(tuition, after school etc), 3~5 years Nuri related work expenses
textbook support	textbook expenses	·compulsory education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of lower income ·special education ·English textbook for primary school etc

Source: Song, Ki-Chang,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2(4), 2013

<Table 4> Unit Change of Education Welfare Program

category	year			
	~2010	2011	2012	2013
category	educational gap	educational gap	educational welfare	educational welfare
tuition	kindergarten lower income children specialized infants	same as 2010, & plus scholarship for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same as 2011	Nuri-curriculum, scholarship for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fter school	teaching-learning support	teaching-learning support	teaching-learning support	welfare policy, whole schools & lower income students
lunch	lower income students	lower income students	lower income, primary school	agenda of free lunch
IT	PC and Internet for lower income	PC and Internet for lower income	PC and Internet for lower income	IT education expense was added
rural school condition	excellent high school, schools with dormitory	excellent high school, schools with dormitory	excellent high school, schools with dormitory	students incorporation plan
welfare investment	disadvantaged students	to general grants from special	disadvantaged students	disadvantaged students
Nuri curriculum	lower income & special infants	lower income & special infants	lower income & special infants	3- 5 all students
textbook	compulsory students	compulsory students	compulsory students	compulsory & lower students

되고 방과후 등 교육지원이 편성되어 12년도에 ‘누리과정 지원’ 13년도에 ‘교과서 지원’ 등과 함께 6개 사업이 8개 사업으로 변경되었다(<Table 3> 참조).

2. 교육복지 정책의 변화

2012회계연도까지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세부사업이 2013회계연도는 우선 세부사업까지 교육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들이 추가·삭제되었다(Ministry, 2012). <Table 3>에 있는 교육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2012년 전후, 2013년에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복지재정의 정책사업은 기존의 교육격차해소정책사업에서 교육복지지원정책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

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복지재정에 대한 세출 구조가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변경된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보편적, 선택적 복지라는 2가지 교육복지재정 유형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교육복지재정 전체를 의미하지도, 2가지 중 어느 하나의 교육복지재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IV.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복지재정 분석

교육재정의 규모는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 및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론적으로는 교육재정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확보된 교육재정의 규모에 맞춰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과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특성 때문에 교육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그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보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Yun, 2011).

이 글에서는 우선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실제 투입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재정규모를 분석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교육복지사업 지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 재정 추이를 검토하였다.

1. 부산시교육청 교육복지 재정 규모 (2009~2013년)

최근 5년간 부산시교육청 전체 교육재정 규모를 세출 결산액(2009~2013)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 2조 5,382억원, 2010년 2조 6,366억원, 2011년 2조 8,753억원, 2012년 3조 779억원, 2013년 3조 1,675억원으로 연평균 5.7% 증가했다. 전년대비 감소한 해는 없으며 전년대비 3.9%, 9.0%, 7.0%, 2.9% 각각 증가해 2011년도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2013년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전체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4,837억원, 2010년 6,277억원, 2011년 6,794억원, 2012년 7,654억원, 2013년 8,005억원으로 특히 2010년 이후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0년 29.8%, 2011년 8.2%, 2012년 12.6%로 나타났으나 2013년에는 4.6%로 연평균 증가율이 13.8%로 나타났다.

2009~2013년 교육복지 재정 현황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교육복지 프로그램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이었는데, 원인은 급식관리가 2009년에 110억원에서 2013년 706억원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2013년에 급증하였으며, 이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과 급식실 현대화,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기인하였다. 반면, 보건관리는 연평균 1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사업이 약화되고 있음이 추정된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계속 증가 추세

로 2012년 1,706억원이었으나 2013년도 581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감소율이 65.9%에 달했다. 그 중 학력신장 단위사업비는 차츰 감소되는 경향으로 2012년도 83억원에서 2013년 61억원으로 4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비, 학력향상지원비, 교육방법 혁신 사업비가 축소된 것이다. 특히, 교과서 무상 지원은 계속 증가하다, 2013년도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사업에서 빠지고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으로 바뀌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시설비와 학생 수용시설비, 학교일반시설을 포함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비는 2010년 3,748억원에서 2013년 2,541억원으로 감소하여 학교교육여건시설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재정투자

201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재정 분석, 즉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 ‘급식 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 ‘누리과정지원’ ‘교과서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Table 6> 참조).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2009년 909억원에서 2013년 3,553억원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1.9%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누리과정지원으로 2012년, 592억원으로 시작해 2013년 1,511억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2013년 교과서 지원금으로 206억원의 돈이 지원되면서 재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급식지원비도 2009년 210억원에서 2013년 883억원으로 연평균 44.2%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2012년에 급격히 678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된다.

이에 비해 학비지원이 2009년 560억원에서 2013년 40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학비지원 은 장학금이나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이고 대부

<Table 5> The Trends of Education Welfare Funding(2009~2013)

(unit : million won, %)

policy/program	2009	2010 (rate)	2011 (rate)	2012 (rate)	2013 (rate)	average rate
welfare total	483,713	627,726 (29.8)	679,476 (8.2)	765,496 (12.6)	800,538 (4.6)	13.8
teaching-learning	58,708	78,436 (33.6)	133,397 (70.1)	170,617 (27.9)	58,155 (△65.9)	16.4
achievement	5,610	8,540	9,044	8,346	6,142	
specialized high school	1,653	18,045	47,747	50,903	19,781	
ICT	18,063	2,664	2,474	2,766	6,037	
extra curricular	16,496	28,763	48,131	70,379	11,581	
students counseling	3,564	5,457	5,891	10,736	7,208	
career education	3,338	4,453	5,384	9,054	7,406	
free textbook	9,984	10,514	14,726	18,433	-	
educational welfare	90,914	105,723 (16.3)	158,263 (49.7)	213,033 (34.6)	355,303 (66.8)	41.9
health-lunch-sports	16,215	21,257 (31.1)	15,391 (△27.6)	20,147 (30.9)	75,181 (273.2)	76.9
health	3,430	2,814 (△18.0)	1,996 (△29.1)	2,991 (49.8)	1,039 (△65.3)	△15.7
lunch	11,048	16,580 (50.0)	11,291 (△31.9)	13,977 (23.8)	70,646 (405.4)	111.8
sports		1,738	1,863	2,104	3,179	3,497
educational conditions	275,483	374,870 (36.1)	315,036 (△16.0)	298,997 (△5.1)	254,141 (△15.0)	0
life-long education	13,565	15,540 (14.6)	16,267 (4.7)	17,544 (7.9)	14,780 (△15.8)	2.9
agency management	28,828	31,900 (10.7)	41,122 (28.9)	45,158 (9.8)	42,978 (△4.8)	11.2
educational finance total	2,538,222	2,636,622 (3.9)	2,875,353 (9.0)	3,077,933 (7.0)	3,167,529 (2.9)	5.7

Sourc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budget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2009-2013)

분이 취학전무상교육복지지원이었던 2009년과 취학 전무상교육복지지원이 빠진 2013년과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자녀학복지지원이 제자리걸음이나 감소하고 있음이 추정된다.

연평균증가율 상으로는 방과후교육지원이 가장 높으나, 이는 2013년도 한 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수치이면서 사업 용도나 사업명의 변경으로, 의미 있는 수치라 할 수 없다.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은 감소폭이 더욱 심각한데 2011년 5억9,600만원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2천5백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사업을 축소한 결과로 판단된다. 정보화지원은 계속 증가해오다 2013년도에 들어와 감소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비도 2013년도 들어와 감소되었는데, 전담인력 인건비 등이 증액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급식지원, 누리과정지원이나 교과서지원 등은 급격한 증가 추세인 반면에, 학비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방과후교육 지원은 2010년 이후 계속 감소되어 오다가 2013

<Table 6> The Trends of Education Welfare Support Policy by Sub-units (unit: million won, %)

policy	program	2009 (rate)	2010 (rate)	2011 (rate)	2012 (rate)	2013 (rate)	average rate
educational welfare		90,914	105,723 (16.3)	158,261 (49.7)	213,033 (34.6)	355,303 (66.8)	41.9
	tuition	56,065	61,868 (10.3)	90,459 (46.2)	57,807 (△36.1)	40,948 (△30.4)	△2.5
	after school program	1,714	1,675 (△3.3)	1,673 (△0.2)	1,622 (△3.1)	34,840 (2,048.0)	510.4
	lunch program	21,026	26,310 (25.1)	41,080 (56.1)	67,802 (65.0)	88,384 (30.4)	44.2
	IT support	4,054	4,195 (3.5)	5,572 (32.8)	5,893 (5.7)	5,057 (△14.2)	7.0
	rural school condition	66	483 (631.8)	596 (23.3)	211 (△64.6)	25 (△88.2)	125.6
	welfare priority	7,988	11,190 (40.0)	18,881 (68.7)	20,433 (8.7)	14,244 (△30.3)	21.8
	Nuri curriculum	-	-	-	59,264	151,132 (155.0)	
	textbook	-	-	-		20,674	

Source: Busan Metrop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budget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2009-2013)

년에 34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방과후학교 운영 경비나 주5일수업제운영 관련 제 경비가 증가한 것과 관련된다.

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지원 재정의 유형별·사업별 추이 분석

앞에서 제시한 교육복지사업의 유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9~2013년 예·결산 자료를 교육복지지원 정책의 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석한 재정의 추이는 <Table 7>과 같다. 모든 학생에 제공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재정(A)은 2009년 취학전 무상교육 학비지원 하나로 시작하여 450억원에서 2013년 취학전무상교육은 삭제되고 특성화고장학금, 방과후학교운영, 주5일제수업, 누리과정지원 등 2,720억원으로 6.0배 급증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2.9%로 매우 높았다. 반면에, 저소득층이나 교육취약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선별적 교육복지재정(B)은 연평균 증가율 17.4%에 그치고 있다.

2009년 학비지원, 학력격차해소,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투자

지원 등 선별적 단위사업에 배정된 재정규모는 458억원에서 증가, 감소를 거치다가 2013년에는 827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보편적 복지의 증가율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 중에서 학력격차해소사업은 방과후등교육지원으로 바뀌어, 2009년 17억원대에서 16억원대로 조금씩 감소하다 2013년 17억원대로 원래 규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복지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보편적 복지재정의 규모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재정은 특히 2012년 1,442억원으로 전년대비 120.6% 증가했고, 2013년 2,720억원으로 전년대비 88.6%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62.9%이었다. 2012년은 무상급식이 409억원, 누리과정지원비가 592억원 등이 또한 2013년도에는 특성화고장학금이 263억원, 무상교과서지원비 194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보편적 복지예산이 급증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만3세~5세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1,511억원으로 급증해 보편적 복지예산을 대폭 증가시

<Table 7> The Trends of Education Welfare Support Funding by Type and Sub-units

(unit: million won, %)

	program	sub-program	2009	2010	2011	2012	2013	average rate
Total			45,043	48,962 (8.7)	65,398 (33.6)	144,242 (120.6)	272,021 (88.6)	62.9
A	tuition	scholarship					26,359	
		free pre school	45,043	48,962	65,398	45,219		
	after school	after school					16,381	
		5 days week					660	
	lunch	free lunch(primary)				40,990	57,990	
	Nuri	tuition				41,957	151,132	
		child care expense				17,307		
textbook	free textbook					19,499		
Total			45,869	56,759 (23.7)	76,727 (35.2)	67,558 (△12.0)	82,773 (22.5)	17.4
B	tuition	scholarship	47	47	47	47		
		low income students	10,974	12,859	24,938	12,540	14,151	
	after school	voucher for low income					17,752	
		solution of achievement gap	1,714	1,675	1,673	1,622		
	lunch	lunch for low income	21,026	26,310	25,015	26,812	30,394	
	IT	low income	667	689	854	1,024	5,057	
		Millenium students	3,387	3,506	4,718	4,869		
	rural school	dormitory program	0	20	22	28	-	
		welfare	60	455	570	177	25	
		itinerant teachers	6	8	4	6		
	welfare	investment priority	6,440	8,808	16,290	16,890	14,244	
		safety network	1,548	2,382	2,596	3,543		
	textbook	highschool low income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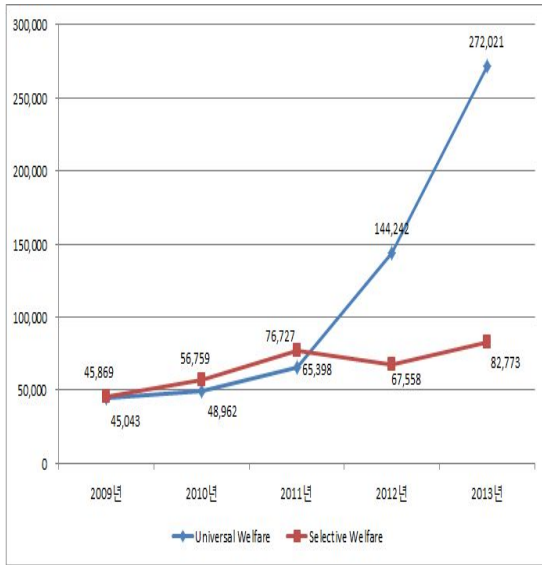
Source: Busan Metroplo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budget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2009-2013)

켰다.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나 교육취약집단 대상 복지예산은 2009년 458억원에서 2013년 827억원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연평균 증가율이 17.4%로, 보편적 복지의 증가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세부사업이 8개, 선별적 복지는 12개로 선별적 복지가 세부사업이 많고 오래 전부터 실시해왔다면, 보편적 복지는 취약 전 무상교육 하나가 오래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나머지는 2012년, 2013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보편적 교육복지예산이 절

대적인 규모가 크고 증가율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하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예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더욱이, 농어촌학교교육여건 개선 지원비의 급격한 감소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할 선별적 복지의 퇴보로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급격하게 높아져 2009년에는 보편적복지(450억원)나 선별적 복지(458억원)나 거의 유사한 비율이었으나 보편적복지는 2013년 88.6%로 6배 증가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교육복지



(unit: million won)

[Fig. 1] The Trends of Educational Welfare Funding by Type (2009~2013)

가 저소득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복지보다 연평균증가율에서 45.5%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의 도입으로 복지의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한 보편적인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한 결과이다. 저소득층이나 교육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지원 재정은 2009년에는 458억원으로 보편적복지(450억원)보다 높았으나 2013년에는 827억원으로 1.8 배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Fig 1] 참조).

4. 교육복지재정의 변화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산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2013~2017년)에서 수립된 교육복지지원 방향은 다음 <Table 8>과 같다.

<Table 8> Funding Plan of Education Welfare Policy

(unit: million won, %)

Educational welfare	2014	2015	2016	2017	annual rate
Total	416,154 (17.3)	445,352 (7.0)	453,870 (1.9)	472,601 (4.1)	7.6
tuition support	37,163 (△8.4)	38,168 (2.7)	37,974 (△0.5)	37,780 (△0.5)	△1.7
after school etc	27,673 (△20.5)	30,510 (10.3)	33,096 (8.4)	36,440 (10.1)	2.1
lunch program	101,866 (15.2)	104,080 (2.2)	104,831 (0.7)	107,394 (2.4)	5.1
IT support	5,535 (9.5)	5,631 (1.7)	5,729 (1.7)	5,828 (1.7)	3.7
condition of rural school	25 (0)	25 (0)	25 (0)	25 (0)	0.0
welfare priority support	12,501 (△12.3)	12,603 (0.7)	12,707 (0.8)	12,813 (0.7)	△2.5
Nuri curriculum support	207,644 (37.4)	228,824 (10.2)	231,621 (1.2)	244,328 (5.5)	13.6
textbook support	23,747 (14.9)	25,511 (7.4)	27,887 (9.3)	27,993 (0.4)	8.0

Sourc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14~2017 Mid-term Financial Planning of education in Pusan, 2014

전체 교육복지 지원은 계속적으로 연 7.6%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완만한 증가율은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수립된 계획이다. 동 재정투자 계획은 고교무상교육의 의무화 등의 정책이 도입되거나 변화에 따른 추정금액은 아니다. 특히, 동 재정투자계획에서 증가하는 것은 누리과정지원 연 증가율 13.6%, 교과서지원 8.0%, 급식지원 5.1%, 정보화 3.7%, 방과후 등 교육지원 2.1% 순이었다. 반면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감소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 -2.5%, 학비지원 -1.7% 순이었다.

그러나, 교육복지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교육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금이다. Lee & Woo(2014)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교육복지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우선순위 1위가 취약계층 집중지원프로그램 2위가 교육부적응 대상프로그램, 심리발달, 학습지원, 무상교육, 건강관련, 학생안전강화, 체험 및 발달,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프로그램순이었

다. 현실적으로 제한된 재정투자 규모 내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이 지출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대상 사업들 간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복지 지원비 중에 감소되고 있는 학비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재정투자 감소 추이, 감소원인, 재정투자 감소에 따른 영향 등은 다음과 같다 (<Table 9> 참조).

학비지원에는 특성화고장학금, 취학전무상교육과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비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학비지원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2년, 2013년에 걸쳐 감소하고 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2011년에 원클릭시스템 기능고도화, 중앙상담센터 운영, 홍보 및 매뉴얼 제작 등으로 인해 93.6%로 증가, 2012년에는

<Table 9> The Financial Condition of Selective Education Welfare Policy (unit: million won, %)

policy/program	2009	2010	2011	2012	2013	average rate
tuition for low income	11,021	12,906 (17.1)	24,985 (93.6)	12,587 (△49.6)	14,151 (12.4)	18.4
tuition total	56,065	61,868 (10.3)	90,459 (46.2)	57,807 (△36.1)	40,948 (△30.4)	△2.5
low income millenium	667	689	854	1,024	5,057	
IT total	4,054	4,195 (3.5)	5,572 (32.8)	5,893 (5.7)	5,057 (△14.2)	7.0
itinerant dormitory welfare	6	8	4	6		
condition for rural school total	66	483 (631.8)	596 (23.4)	211 (△64.6)	25 (△98.2)	123.1
investment priority safety network	6,440	8,783	16,290	16,890	14,244	
welfare total	7,988	11,190 (40.0)	18,881 (68.7)	20,433 (8.2)	14,244 (△30.3)	21.7

Source: Busan Metroplo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budget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2009-2013).

평생교육시설학교 수업료 지원대상자 감소, 원클릭시스템정보이용료 및 상담인력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49.6%로 감소하였다.

정보화지원에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밀레니엄꿈나무인터넷통신비지원이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월 17,600원 인터넷통신비 지원으로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지출된다. 2013년도에 두 가지 사업을 정보화지원으로 통합했으며, 2013년도 지원비는 입찰잔액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학생수 감소(담임추천제 폐지)로 인해 14.2% 감소하였다. 이는 담임추천제 폐지로 인한 지원 학생 수 감소가 원인으로, 지원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학생 수의 감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비의 감소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는 기숙형공립학교 지원, 교육복지지원학교교육활성화의 내부사업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 해당된다. 2010년 철마초 순회보건교사 추가 발령, 죽성초 1,2학년 복식학급 편성으로 인한 담당교원 예산 증액과 기숙형공립고운영비 지원, 우수교원 유인을 통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로 인해 급격히 증가했다가 농산어촌교육복지지원에서 2012년 교과부 특별교부금 내시액 미확정으로 인해 학교 사업비 감액, 운영비 감액, 인건비 감액, 문화체험 등 0원, 농산어촌연구지원센터 분담금 0원, 2013년도에는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사업 특별교부금 미지원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98.2% 만큼 줄어들고 세부사업명도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으로 바뀌면서 순회교사지원금, 기숙형공립고지원금도 삭제되었다.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목적이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돌봄기능강화를 위한 농어촌 면 소재 우수 초등학교 육성,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학교에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어촌 학생 교육 내실화에 있다면 지원금 감축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

다.

교육복지우선지원에는 투자우선지역지원과 교육안전망구축 사업이 있는데, 투자우선지역지원은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출발점 평등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으로 교육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것이고, 교육안전망구축은 다문화·탈북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2011년 68.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 교육취약 학생의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지원과 교육취약학생 밀집학교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으로 전환, 통합되면서 30.3%로 감소하였다. 이는, 사실상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운영을 축소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교육복지재정의 변화가 저소득층 대상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보편적 복지로의 국가 정책 등에 지원금이 쏠림에 따라 복지지원금이 더 절실한 선별적 복지로의 지원금이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Kim, 2013; Chun et al, 2013; Song, 2013; Lee·Woo, 2014). 이는 본 연구의 교육복지정책상 저소득층 대상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서 해당하는 학비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지원, 교육복지지원에서 주로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학생 수¹⁾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육복지 지원금이 증대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교육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금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복지가 모두 보편적 복지로 지향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교육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복지지원금 배분이 우선되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1) 2013년, 부산광역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438,548명, 2014년 426,719명, 2015년 414,771명, 2016년 401,685명, 2017년 391,339명으로 추정함 (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개념 및 영역에 대한 불명확성, 그리고 최근 보편적 복지재정 투자의 급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교육복지재정의 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2009 ~ 2013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복지재정의 규모와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보편적 복지 유형의 재정 투자 급증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복지 재정투자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정책에서는 교육복지지원이라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을 복지급여의 대상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보편적 복지에는 누리과정 지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선별적 복지에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장학금지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교과서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전체 교육복지재정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2009년 4,837억원, 2010년 6,277억원, 2012년 7,654억원, 2013년 8,005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3.8%였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특히 2010년 이후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0년 29.8%, 2011년 8.2%, 2012년 12.6%로 최고점에 달한후 2013년 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교육복지지원의 규모를 사업별로 보면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2009년 909억원에서 2013년 3,553억원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1.9%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누리과정지원으로 2012년, 592억원 2013

년, 1,511억원이었고, 급식지원비도 2009년 210억원에서 2013년 883억원으로 연평균 44.2%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학비지원은 2009년 560억원에서 2013년 40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감소폭이 더욱 심각하여 2011년 5억9천6백만원까지 증가하다 2013년 2천5백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넷째, 교육복지지원 중 유형별 교육복지재정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보편적 교육복지재정의 규모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2년 1,442억원으로 전년대비 120.6% 증가했고, 2013년 2,720억원으로 전년대비 88.6% 증가로 연평균증가율이 62.9% 이었다. 이에 비해 교육복지지원에서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나 교육취약집단 대상 복지예산은 2009년 458억원에서 2013년 827억원, 연평균증가율 17.4%로 보편적복지와는 45.5%차이가 났다. 이는 보편적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투자가 감소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교육복지 지원 정책사업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복지지원비가 감소한 사업을 파악하였다. 학비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이다. 학비지원은 연평균 18.4%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49.6%로 감소하였으며, 정보화지원은 연평균 7.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에는 -14.2% 감소하였다.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여 2013년 2천5백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은 연평균증가율 21.8%이나 2013년도에는 -30.3%로 감소하였다.

이상의 지방교육복지재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교육 복지재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복지의 개념과 유형이 달라진다. 학자와 기관에 따라 교육복지의 개념과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된 개념과 유형에 근거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

복지재정 세출 구조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복지재정 세출예산 사업명은 교육복지지원인데 복지사업 유형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특히, 사업의 특성에 따르면 교육복지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도 복지지원 정책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 세출 구조를 일관성 있게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별적 교육복지사업의 규모 축소이다. 의무교육실시 확대,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지원 등의 사업들은 보편적 복지로서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정책이지만, 현재 교육복지에 대한 재정이 이를 뒷받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저소득층이나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점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Jo·Yu, 2012; Kim, 2011).

셋째, 최근 급증한 보편적 교육복지재정 투자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2011년 이후 교육청의 무상급식, 교육부의 유아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도입되면서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과 국가 수준에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교육복지 정책을 도입하면서 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있다(Kim·Kim, 2012).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투자되는 선택적 복지에 대한 예산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보편적 교육복지가 추진되어야 할 경우 이를 위해서 예산을 재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계속 감축되어온 시설사업비,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비, 보건관리 등에서 재정투자가 감소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이 마

련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n, Byeong-Young · Kim, In-Hee (2009). Education Welfare Policy, Seoul: DaSan.
- Ban, Sang-Jin(2013). New directions and policy agenda of financial support to implement the president-elect Park's pledge for higher education welfare,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2(4), 121~148.
-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09~2013). Special education budget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2014). 2013~2017 years Mid-term financial planning for education in Busan.
- Choi, Jong-Ho(2011). Interests of the advanced welfare democracies, Political Studies, Kore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Choi, Kwang(2012). Korean Public Finance in Retrospect: Critical Discourses, Finance Research 5(2), 53~89.
- Chun, Se-yeoung · Kim, Hyeok-yeon · G. Ulziisaikhan (2013). Policy Logic and Scale Estimation of Education Welfare Finance,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2(1), 51~70.
- Jo, Gyeong-Yeop · Yu, Jin-Seong(2012). Populist welfare policies and fiscal health, Korea Economic Institute Seminar data 2012(9), 24~50.
- Kim, Dae-Ho(2010). Free meals and universalism, and dynamic welfare state, Monthly Welfare Trends 140, 12~18.
- Kim, Gyeong-Aa et al(2011). First Promotion of the site center voluntarily education welfare support business plan research,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im, Hyeok-Yeon(2013). Analysis of size and features of education welfare finance, Chung Nm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PhD thesis.
- Kim, In-Hee(2010). Task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Eliminating Educational Alienation and Disparity, Korea Social Policy Review, 17(1). 129~175.
- Kim, In-Hee(2011). A Study on the Perspective of

- School as Education Welfare Community, Political education research 18(4), 29~60.
- Kim, Jeong-Won et al(2008a). Research for Education Welfare Master Plan,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Kim, Jeong-Won et al(2008b). Research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ducation Welfare Measures,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Kim, Min-Hee(2012). Direction and Task of Educational Welfare Finance,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1(1), 91~124.
- Kim, Min-Hee · Kim, Ji-Ha(2012). Contribution and Tasks of Granting Special Subsidies for Local Education Financial Subsidy System,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1(3), 1~34.
- Kim, Yong-Ha(2012). Potential Welfare Spending and Fiscal Sustainability, Korea Institute of Finance 2012(12), 3~25.
- Ku, In-hoe · Son, Byeong-Don · An, Sang-Hun (2010). Social Welfare Policy, NaNam.
- Lee, Bong-Ju · Woo Myeong-Suk(2014). Universal education welfare, limited education budget: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The Korean Society for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 Lee, Don-Hee(1999). Education definition, Seoul: Education Science Publishers.
- Lee, Sang-Yun(2010). Legislation Improvement Plan for the education gap,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Training financial management reports.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2004). Participatory Government Education Welfare Comprehensive Plan(2004-2008).
- Park, Jae-Youn · Hwang, Jun-Seong(2008). A Study on the principles and tasks of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Education Law Studies 20 (1), 49~81.
- Ryu, Bang-Ran(2010). Direction of education policy for the education welfare disadvantaged group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onference, 94~109.
- Ryu, Bang-Ran et al(2011). 2010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 Support Program Evaluation Report,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Ryu, Bang-Ran et al(2012).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 Support Program Longitudinal Effects Analysi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Song, Ki-Chang(2013). The Expansion Measures of Financial Resource for Local Education by the Demand Prospects for Implementation of Presidential Pledge on Educational Welfare of Park Geun-hye Government,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2(4), 85~119.
- Yoon, Hong-Sik(2011). The Essence of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2), 57~79.
- Yun, Hong-Ju(2011). An analysis of Trends and Determinants of Location Revenues,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0 (1), 75~102.
- Yun, Hong-Ju(2012).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of general grant system of local education,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1(3), 145~171.

-
- 논문접수일 : 2014년 08월 18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9월 02일
2차 - 2014년 09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29일